| 현불 논단 |

다정이 병이다



주경 스님
조계종중앙종회
차석부의장

언제부턴가 부모님 전화 많아졌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엔 걱정 · 염려만

바로 노인들의 '마음 쓰이는 병'이다
자주 연락해 염려와 걱정 덜어드려야

밤낮없는 두견새 울음은 번뇌의 소리
마음이 물러서인가 가족 · 친구 생각나
잠시 합장하고 그들의 평안 빌어본다

짧은 봄이 다 지나가고 있다. 그리도 분주하게 신명을 다해 준비한 부처님오신날이 반짝 지나고 문득 사월 보름 하안거 결제를 맞았다. 또 한 철이 이렇게 시작된다. 해가 갈수록 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봄이 짧아지는 걸 온 몸으로 느끼게 된다.

늦은 봄비에 마당에 깔렸던 송화들이 다 씻겨가고 젖은 마당을 쓰는 아침이 무척이나 상쾌하다. 길가에 우뚝 솟은 키 큰 아카시아 꽃들은 흐드러지다 못해 누렇게 익어가고, 불현듯 봄을 보내는 마음이 어딘지 모를 아쉬움에 미련 같은 것이 남는다.

어머니께서 안부전화를 주셨다. '아픈데 없느냐?' '공양은 하였냐?' '잘 지내느냐?' 등등 말씀마다 염려와 걱정이 뚝뚝 묻어난다. 초파일에 사찰에 다녀가신지 채 열흘이 안 되었는데 노인네의 걱정은 늘 그렇게 진득하다. 부모의 은혜 가운데 끝끝내 자식을 연민하시는 은혜를 거듭 새기게 된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

언제부턴가 아버님도 한 손 거든다. 처음 아버님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혹시 무슨 안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일어났었다.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의 떨리는 음성과 탁한 숨소리를 통해서 느릿하게 전해오는 당신의 말씀은 그저 평이한 안부 말씀이 용건의 전부였다. 당신 평생의 삶을 돌아보아도 결코 이런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닌데 너무 뜻밖의 일이라 놀랍고 황당함을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전화가 올 때면 눈물이 날만큼 사무치게 감사하지만 또한 아프도록 죄송한 마음도 함께 일어난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해드려야 할 입장인데 도리어 어른들의 염려를 사고 있으니 이런 불효가 없다.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지금보다 당신들이 젊고 활기찰 때의 무심하고 덤덤함이 훨씬 좋았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매년 추석과 설날에 안부전화를 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당신들이 전화를 주시기 시작한 후로 전화를 드리는 일이 줄게 되었다. 노인들의 다정(多情)이 병이다. 마음 쓰이는 병이다. 아무래도 자주 먼저 전화를 드려서 노인네들의 다정으로 인한 염려를 덜고 나의 고민도 덜어내야 할 것 같다.

문득 학창시절 배웠던 '다정가(多情歌)'라고 하는 옛 시조 한 수가 떠오른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랴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산사에 사는 사람만큼 꽃과 달에 친근한 사람들이 있을까. 새벽예불 때 만나는 달빛에 비친 봄꽃들은 그야말로 축복이다. 청량하게 들이쉬는 새벽 숨결에는 꽃향기와 달빛 그리고 별들의 반짝임이 흠뻑 배어 있다.

담담한 호흡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담박하고 무심한 산승의 마음에 은근히 춘심(春心)이 배어드는 시간이다. 밤낮없이 울어대는 두견새와 소쩍새들의 애절한 울음소리 또한 잔잔한 일상을 흔드는 번뇌의 소리들이다.

물러진 마음 탓일까 울적한 기운이 스며든다. 부모님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형제들도 생각이 난다. 학창시절 불교활동을 함께 했던 옛 친구들도 생각나고 불교의 홍포와 전법을 위해 애쓰는 법우들과 불자들도 생각이 난다. 길거리에서 또는 높고 낮은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평등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들어온다.

잠시 두 손 모아 축원의 마음을 가다듬어본다. 부디 다들 편안하시길, 행복하시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기를,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기를.

社說

불교 '미디어 正見 교육' 시급

최근 젊은 세대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속 불교 폄훼가 심각하다. 스님들을 위장한 몰카와 자극적인 상황극을 시작으로 일부 인기 스님에 대한 비난도 높다. 지난해 횡행했던 유튜브 속 불교폄훼 콘텐츠가 다시 늘고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이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금만 자극적이어도 조회수와 구독수가 증가하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에 따라 불교와 스님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방식으로 이목을 끌려고 하는 콘텐츠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혐오범죄의 일환으로도 볼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타인이나 다른 집단을 혐오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형량을 높여 처벌할 수 있다. 양형 기준에 혐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혐오 자체로 처벌을 받는 제도는 없다. 불교계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도 마련과 함께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이 교육은 양질의 미디어를 가려 볼 수 있는 양식을 키우는 작업이다. 청소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를 피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의 미디어를 접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본격적인 미디어 범람시대, 수많은 불교 폄훼, 비하 콘텐츠를 억제할 순 없다. 이런 콘텐츠 제작도 미디어 수요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디어는 선입견과 편견을 심는다. 이 상황에서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은 불교 콘텐츠 만이라도 제대로된 안목을 가지고 가려 볼 수 있는 청소년 불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팔정도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정견이다. 바로 보아야 방향이 선다. 미디어 시대 미디어 정견을 길러 주는 일에 불교계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숨도' 청년불교 진흥 응원한다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신촌 3개 명문대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기독교계 재단이란 것이다. 이들 학교에서 불심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 신촌지역 3개 대학 연합법회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공간 '숨도'는 불교 문화를 신촌지역에 제공하고자 세운 문화공간이다. 숨도는 올해 2월 3개 대학 불교동아리들의 만남을 주선했고, 이후 이들 불교동아리들이 자발적으로 연합법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청년불교 진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작 불자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은 불교계에 턱없이 부족했다. 숨도는 스터디룸, 강당 등으로 이뤄져 있는 문화공간으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외에도 자연스럽게 학업과 단체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언제 어느때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개방성에 가까운 서강대생들을 비롯해 다소 거리가 먼 연세대와 이화여대 학생들까지도 많이 찾고 있다.

이웃종교계는 이러한 공간 마련에 앞장이다. 개신교계는 교회 인근에 다양한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개설하고 있다. 심지어 홍대 인근에는 클럽도 열었다. 먼저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해당 종교를 접하라는 취지다.

한국불교는 청년층 소멸이란 큰 위기에 있다. 한국불교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전법을 해야 한다. 청년들이 쉬고, 놀고, 공부하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불교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숨도와 같은 문화공간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기자칼럼

신성민 취재부 부장

'똘레랑스' 없다면 무자격 정치인

혹자는 기억할지 모르겠다. 이찬수 강남대 교수를. 현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06년 불교 언론을 비롯해 일간지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유는 이렇다.

개신교 사학인 강남대의 교양필수교과를 교육했던 이찬수 교수는 2006년 1월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이유가 "창학이념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서"였다.

창학이념에 맞지 않는 사례는 2003년 이 교수가 EBS의 '똘레랑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찰에서 절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강남대 교목실은 이찬수 교수의 행동에 문제를 삼았다. 이에 그는 "모든 기독교인이 배타적이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적인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해임됐다. 이후 이찬수 교수는 복직 소송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다.

부처님오신날, 불자들에게는 어느 날보다 기쁜 하루가 올해에는 갈등으로 얼룩졌다. 개신교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은해사에서 봉행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합장도 반배도 관불의식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관불의식을 권하자 손사래를 치며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아마도 합장 반배와 관불의식이 개신교도인 그에겐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불자들은 공분했고 국민들은 "예의없다"고 힐난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5월 22일 성명서를 내고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황교안 대표의 논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찬수 교수가 오버랩됐다. 자신의 신앙을 관철위해 관불의식을 손사래 친 무관용의 정치인과 개신교인이 배타적이지만은 않다며 불상에 절을 한 신학 교수.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관용의 정치인은 '우상숭배'라는 문자주의적이며 배타적인 계율의 족쇄에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이고, 다른 지식인은 같은 신앙 안에서도 자유롭게 사유하고 행동한다.

일련의 사태를 보고 이찬수 교수는 개신교 언론 〈뉴스앤조이〉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국 개신교가 '우상숭배'라는 '형상 알레르기'에 빠져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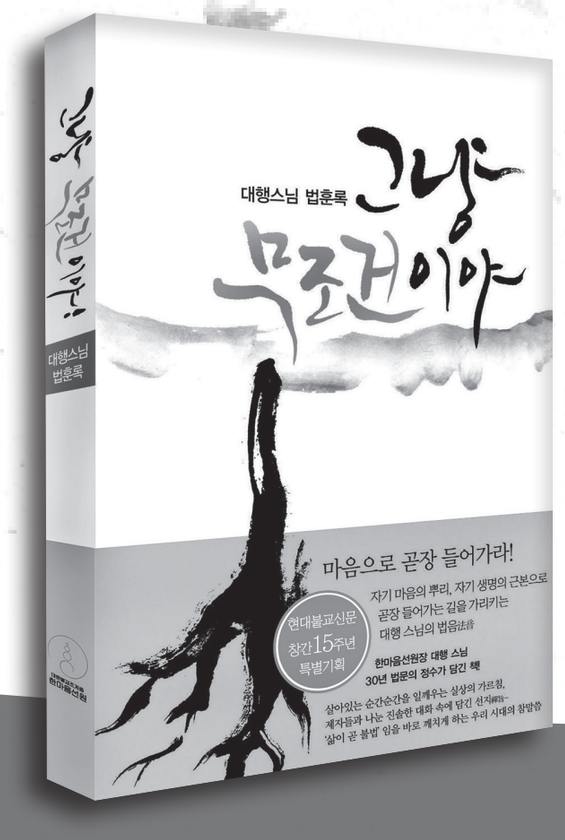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란, 어떤 형상 앞에 절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인간적 욕심 안에 가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행위의 수단 내지 근거로 하나님을 들먹이는 행태가, 하나님을 우상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우상숭배인 것이다."

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자유로워짐에 있다. 불교는 부처가 됨으로서, 기독교는 구원을 얻음으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배타적 신앙은 자신에는 족쇄로, 타인에게는 폭력으로 다가간다.

한국사회는 바야흐로 다양성의 사회다. 다양성은 다름을 인정할 때 빛난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는 다른 종교 · 신앙을 용인하는 '똘레랑스(Tolerantia, 관용)'가 필요하다. 똘레랑스가 없는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활동하는 데 한국사회가 어떻게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합장 반배도 할 줄 모르는 무관용의 정치인은 '똘레랑스'라는 덕목을 배우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